

칼빈의 경제윤리

(앙드레 비엘러 저/홍치모 역/성광문화사, 1985)

전강수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왜곡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한다. 억압적 통치와 극한적 저항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향락과 퇴폐가 판을 치고 상업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문화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설 자리를 잃고 만 듯하다.

경제적 현실은 어떠한가? 독점과 투기로 대표되는 극단적 치부욕이 만연하고,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가의 극한적인 이윤추구동기와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여지없이 망가진 느낌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한 형태로 可視化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고, 이 나라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고 날마다 확장되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으로 기독교 신자의 양적 팽창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인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오늘날의 교회는 아무런 치유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와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된 세상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날마다 왜곡 파괴되고 있는 것도,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도 차라리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앙드레 비엘러의 「칼빈의 경제윤리」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요한 敎會史의 사실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왜곡 파괴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 특히 위와 비슷한 의문과 고민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경제학자로서도 미숙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찢먹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대해 논평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이 글을 한 初信者 經濟學徒의 독후감 정도로 이해하고 읽어주면 감사하겠다.

이 책은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인과 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성, 사회의 구성, 교회·사회·국가의 관계 등에 관한 칼빈의 생각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大作이요,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자유를 상실하고 날마다 노예상태와 파멸로 전락해 간다. 칼빈은 이와 같은 비관주의적 인간상과 함께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우리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不可視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성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죽는 날까지 信者의 인간성과 비인간성이 충돌한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시적 사회질서도 인간의 타락에 의해 왜곡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원시적 사회질서는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한 -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회복 가능하며, 이러한 공동체가 사회 구축구석에 존재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봉사와 물질의 교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라는 인식과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배태되어 나오는 책임의식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로부터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칼빈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완전한 혼돈상태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정적 질서, 즉 정치적 질서를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질서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상대적 윤리성 속에 집어넣은 외부적 긴장으로 구성된다. 이 정치적 질서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야 한다. 여기서 칼빈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은 그 사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의존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되 사회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생동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회 그 자체가 사회적 무질서를 조장하게 되고 국가 그 자체가 무질서의 요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제2장: 돈과 財産’에서는 칼빈이 돈과 재산에 대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돈과 재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표징이다. 즉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표시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하신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에 富의 불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생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끊임없는 재산의 재분배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즉 그는 ‘가난한 자들의 公僕’인 것이다. 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자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이와 같은 사랑의 질서는 세상에서 심각한 궤방을 받아 왔다. 하나님의 도구여야 할 돈이 재물의 神의 지배 하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러자 그것은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무질서의 방편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교회 안에 영혼과 물질, 종교와 돈을 철저히 구별하는 이원론이 침투하고, 마침내 교회까지도 재물의 신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구성되는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정복함으로써 재물의 신이 왕좌에서 강등당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폐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재산을 모든 사람이 같이 다루고 처분할 수 있

게 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 사이에 확립시켜 놓으신 새로운 영적 연합이 그들의 물품들을 능력과 필요에 따라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와 같은 일을 구체화 하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새롭게 확립하였다. 칼빈 당시의 집사직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물품을 재분배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돈이 지니고 있는 봉사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그 돈은 사회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는 상품의 유통과 소득 및 부의 분배를 감독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질서를 사회 전체 안에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제3장:노동, 임금, 상업, 그리고 은행’에서는 노동, 임금, 상업, 이자 등 경제학의 기초 범주들의 성격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소개하고,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과 일치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거부함으로써, 그 노동은 즉시 고통, 염려, 부정, 억압의 근거가 되어 버렸다. 노동이 다시 진정한 노동이 되어 억압이 아닌 봉사의 근거가 되고, 또 노동자에게 만족을 주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일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일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하면 노동은 더 이상 억압과 분열의 기회로 악용되지 않고 다시금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 한편 칼빈은 게으름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며 소외된 인간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은 분명히 게으른 자가 빵을 먹는 것을 저주하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게으름을 강요하는 실업은 철저히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은 전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할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살해 주신다. 임금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임금을 압수하거나 가로채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것이 된다.

더욱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어느 편에도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마땅히 임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양자가 자신들이 받는 열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한다면, 올바른 임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상업과 이자에 관한 칼빈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으나 지면관계상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비엘러의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칼빈 이전의 모든 신학자들은 경제생활의 근거를 구속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적인 자연윤리에서 찾았던 반면, 칼빈은 최초로 물질생활이 구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리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의 멸시를 받고 있던 경제생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청교도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의 온갖 부정적 측면까지 칼빈주의의 영향이라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칼빈은 누구보다도 돈과 노동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과 국가가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비엘러는 이와 같은 칼빈의 경제관을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제4장: 칼빈주의와 현대사회’에서는 칼빈의 인문주의가 완전한 인문주의, 초교파적 인문주의, 보편적 인문주의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보완할 경우 현대사회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지면관계상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확인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끝을 맺기로 하자.

첫째로, 오늘날의 교회는 칼빈이 생각하고 또 실현하고자 노력한 교회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초대교회와 칼빈 지도 하의 교회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공동체로부터 그 알맹이는 제거되고 종교적 외피만이 남아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집사제도의 변질을 생각해 보라). 칼빈의 생각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도처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내의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의 징표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개혁되기를 거부할 때,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참으로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칼빈은 인류사회의 전망과 관련하여 대단히 훌륭한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대원칙은 마르크스 이전 이미 성경 가운데 들어 있었고 칼빈에 의해 명확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던 것을 마르크스가 끌어내어 유물주의적 세계관 속에 이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식과정에서 그 세계관의 전도라고 하는 근본적 변화 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변조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칼빈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같이 다루고 처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집단화하는 대신 그 이용이나 처분은 계획에 의존시킴으로써 결국 소수의 수중에 맡겨 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의 동구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은 바로 이와 같이 변조된 원칙이 파탄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침내 사회주의권에서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이용과 처분의 방식이 문제임을 깨닫고 이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사회주의권의 경제개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공동적 이용과 처분은 인간의 변화를 전제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같은 변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영존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기초로 그것을 공동적으로 이용 처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갈 것을 제안한 칼빈의 통찰력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